

# 북유럽 감성에 408마력... 1회 충전으로 서울~부산 '거뜰'

## 폴스타, '폴스타2' 출시

LG엔솔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유로 앤캡 자동차 안전도 최고등급  
전기차업계 최고수준 보증 지원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18일 '폴스타2'를 국내 출시했다. 폴스타는 볼보자동차와 중국 지리 홀딩이 설립한 전기차 전문 브랜드다.

폴스타 2는 브랜드 최초의 100% 순수 전기차이다. 폴스타가 재정의한 프리미엄 전기차의 스펙트럼을 확장함은 물론, 전기 모빌리티의 매력을 알려 지속가능한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개발됐다. 전 세계 19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비롯해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의 어워드에서 50회 이상 수상하며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폴스타는 단순함과 절제를 추구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지향한다. 폴스타2에 처음 적용된 프레임 없는 사이드미러 크기는 기존 사이드미러보다 30% 줄었다. 차량과 같은 색상의 무광 엠블럼도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준다.



스웨덴 전기자동차 브랜드 폴스타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에서 폴스타2를 공개했다.



/손진영기자 son@

내부는 비건 소재와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가죽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폴스타2는 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와 뮤직 애플리케이션(앱) 플로 등도 포함됐다.

폴스타2는 유로 앤캡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배터리 팩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해 배터리와 탑승객을 모두 보호한다.

앞 좌석 에어백은 외부 충격 시 탑승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

폴스타2는 롱레인지 싱글모터와 듀얼모터 등 2가지다. 히트펌프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LG에너지솔루션의 78KW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다.

롱레인지 듀얼모터는 동급 최고 수준의 408마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특유의 다이내믹한 운전을 선사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가속하는데 4.7초면 된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334km다.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231마력에 1회 충전 시 최대 417km를 갈 수 있다.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 5490만원, 듀얼모터는 5790만원이다. 패키지 옵션으로는 주행을 지원해주는 '파일럿 팩'이 350만원, 차량 가치를 더해주는 '플러스팩'이 450만원이다.

서울과 스페이스 경기, 스페이스 부산 등에서 24일부터 폴스타2를 시승할 수 있다. 차량 인도는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스웨덴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세계 어느 시장보다 매력적인 가격과 상품성을 갖춘 폴스타2를 선보일 수 있었다"라

며 "폴스타2를 통해 프리미엄 전기차의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폴스타코리아는 폴스타 2가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마련했다. 5년 또는 10만km의 일반 부품 보증과 8년 또는 16만km 고전압 배터리 보증을 기본 제공하며, 보증 수리 시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도 무상 제공한다.

또 5년 LTE 데이터 사용 및 1년 플로(FLO) 뮤직 앱 서비스도 기본 제공하여 고객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구현모 "올해 안전·안정·디지코 방점... 사업 운동장 넓힐 것"

(KT 대표)

## KT 파트너스데이

300여개 파트너사 비대면 참석  
우수 협력사 협업, 그룹 전체 확대

KT가 올해 주요 경영 방향으로 '안전 대책 강화'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디지코 상생·성장'을 강조했다.

KT는 18일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제 8회 파트너스데이(Partner'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300여 개 파트너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함께 자리 했으며,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KT 구현모 대표, Customer부부장 강국현 사장, 경영기획부장 박종욱 사장, Enterprise부부장 신수정 부사장, AI/DX융합사업부부장 송재호 부사장을 비롯해 일부 파트너 기업의 임직원들이 현장에 참석했다.

2014년 시작해 8회를 맞은 'KT 파트너스데이'는 KT와 파트너 기업들이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이 날 KT는 파트너 기업들에게 올해 주요 경영방향을 설명하고, ▲안전 대책 강화 ▲안정적인 고객 서



KT 구현모 대표(좌측)와 AI서빙로봇 파트너사 베어로보틱스 김준수 대표(우측)가 디지코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조하는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 /KT

스 제공 ▲디지코 상생·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의 안전과 보건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KT는 안전대책 강화와 안전 인프라 체계적 개선을 최우선 강조했다. KT는 안전 전문가관과 협업해 공사현장 실증과 안정공법·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 위험성 점검장비(PCP스캐너)와 추락방지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크레인·버켓차량 등 특수차량의 안전인증을 일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체험형 교육 등 파트너 기업 대

상 안전 교육을 연중 진행한다. KT는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파트너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장기수요 공유, 부품이원화, 소통합의체 강화 등을 통해 협력하고 고객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T는 또 파트너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법률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계약 전 과업수행 근절 등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파트너 제보창구 마련하고 파트너와의 신뢰를 강화한다.

이어 파트너 기업들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KT는 변화하는 사업영역에서도 상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파트너 개념을 도입했다. 물자, 공사 등 기존 통신사업 중심의 협력사 운영체계에서 다양한 신사업 영역을 포함한 파트너 생태계 확장으로 제휴와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파트너 통합 플랫폼 '에코온'을 도입해 KT 사업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외부제안 프로세스를 개선해 파트너의 아이디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

또한, 우수한 협력사의 기술과 솔루션 기반의 협업 범위를 그룹사로 확대해 사업 기회를 확장하고, 외부제휴 활성화, 지역기반 중소벤처 육성 등 대내외 협업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DIGICO KT로의 성장이 본격화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KT가 사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활발한 소통·지원으로 파트너와 함께 성공스토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LGU+ "SRT 기차, VR로 즐기세요"

LG유플러스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해 SRT(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과 협업해 자사 XR(확장현실) 플랫폼인 'U+DIVE' 앱(App)을 통해 SRT 기차 여행 VR(가상현실)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양사가 공개한 기차여행 VR콘텐츠는 SRT 운전자 1인칭 시점에서 열차가 고속 주행하는 장면을 VR영상으로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로, 실제 SRT를 타고 기차여행을 가는 듯한 생동감을 선사한다. ▲동탄-공주 ▲공주-익산 ▲익산-광주송정 ▲광주송정-나주 ▲나주-목포 등 다섯 구간의 주행영상을 담은 각 5분 분량의 5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대 300km/h의 빠른 이동에도 불구하고 상하좌우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채윤정 기자

## SKT '누구 캔들 SE' 인터넷 판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 캔들 SE(NUGU candle SE·사진)'를 18일부터 11번가를 통해 판매한다. '누구 캔들 S



E'는 인공지능(AI) 플랫폼과 조명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AI 기기로 인기를 끌었던 '누구 캔들'의 후속 모델로, 패브릭 컬러를 변경하고 음향 품질을 개선한 제품이다. '누구 캔들 SE'의 가격은 10만 9000원(VAT 포함)으로, 18일부터 11번가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채윤정 기자

## SKT 양자 기반 보안모듈, 국정원 KCMVP 인증

(암호모듈검증)

국가기관 납품 가능 보안수준 충족

SK텔레콤이 자사 양자암호 기반 전송암호화장비에 대한 국가정보원 인증을 획득, 국가기관 납품에 요구되는 높

은 보안수준을 충족한 국내 첫 사업자가 됐다.

SKT는 양자암호기연동국제표준을 만족하는 전송암호모듈로 국정원 암호모듈검증(KCMVP)을 국내 최초로 획

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SKT에서 인증 받은 모듈은 100Gbps·10Gbps급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모듈 2개 제품으로, 고용량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차세대 광통신장

비(POTN)에 탑재된다.

SKT가 이번 인증에 적용한 '티 크립토'(T-Crypto)는 순수 국내 암호 기술인 'LEA'를 기반으로 최대 100Gbps 속도로 빠르게 정보를 전송하는 광회선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안전하게 암호화하거나 풀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채윤정 기자

/채윤정 기자